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산 박순철

# 화순군, 아열대 작물 모링가 기후변화대응 특새작목 발굴

### 차요테·여주 등 특새소득작목화 실증재배 추진



화순군은 지구온난화로 작물 재배지역이 북상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모링가 작물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군은 모링가를 지역 특새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3ha 면적에 실증재배를 추진하여 화순 지역에 맞는 노지형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고자 지난 6월 상순에 정식작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아열대 작물인 차요테와 여주의 소득 작목화를 위해 현재 실증재배를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 서북부 히말리아가 원산지인 모링가는 동남아시아가 주 생산지이며 생장속도가 빠른 낙엽성 나무로 열대, 아열대 지역에 주로 자생하고 있다. 특히 아연, 황, 철 등 92종의 영양성분과 46종의 황산화성분이 풍부하여 해외에서는 질병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어 '기적의 나무'로 불린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차요테 0.15ha, 여주 0.7ha 등 기후변화대응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배 기술을 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소비시장 확대에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나주시,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추진...농촌 활력 'UP'

### 농촌지도자회 회원 대상 금융·세무·안전 등 맞춤형 교육

나주시는 지역 농업인의 역량강화에 따른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읍·면 지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달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한국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 회원 66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상담소 및 읍·면별 복지회관 등에서 총 14회에 걸쳐 읍·면별 수요자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농업인이 알아야 할 금융상식', 전문 세무사 초청 '세무상식, 나주소방서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진행한

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안내와 더불어 여름철 품목별 작물재배기술교육 등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회장 최원섭)는 지난 1947년 4·8구락부 성인지도자'로 출발하여 70여 간 지역농업발전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농업 후계인력 문제 해소,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업기술전파 및 토착민과의 소통 등에 주력해오며, 농업 분야 벤



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 등 신규 농업인에게 영농기술을 비롯한 농업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데 힘써줄 것"이라며, "질체된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귀농·귀촌, 여성·청년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 허석 순천시장, 국고 확보에 분주

### 기재부 예산실장·문화재청 차장 등 잇따라 만나

허석 순천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고 확보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허 시장은 11일 대전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과 공약사업 해결을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8월 간 기재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마지막 남은 기간에 총력을 다하는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문화재청을 방문 순천역성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건의하고, 산림청에서는 순천 서면 용계산 일원을 순천만국가정원에 비금가는 생태·문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순천 기적의 숲 조성사업' 480억원 중 국비 240억원 지원요청했다. 환경부에서는 '동천하구 흑두루미 서식지 조성사업' 157억원 중 139억원을 국비 지원 건의하고, 기재부를 방문 '글로벌 마그네슘 연

구센터 기반구축 사업' 200억원과 '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 160억원의 국비 지원을 각각 건의했다. 이날 서울 출장으로 만나지 못한 안병욱 환경부 차관은 한때 허 시장과 함께 시민운동을 한 막역한 사이로 조만간 만나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허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집행력을 총동원한 주요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논리 개발로 해당 부처를 설득하고, 자신의 학연과 인맥도 동원하여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설계 당선작 선정

광양시는 광영동에 새롭게 지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그동안 시는 지난 5월 설계 공모를 통해 6개의 작품을 접수받고 지난 9일 공모 심사를 거쳐 당선작, 입상작 2점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신축부지가 광영체육공원과 광영주차장 부지에 인접한 경사지형인 민릉 공원과 주

차장의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하고, 주요실 남향 배치와 패시브 디자인을 도입한 친환경 건축물 계획에 주안점을 뒀다. 심사 결과 (주)아이에스피건축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과 패시브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합쳐진 'Double Direction'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당선작은 경사지형과 향을

고려한 건물배치와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창의적인 디자인 등이 우수하고, 공간계획과 친환경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19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광양경제청장, 삼우중공업 방문 일자리 창출 확대 요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김갑섭 청장은 11일 울촌제1산단에 입주한 삼우중공업(주 대표자 이호태)을 방문하여 기업체의 경영현황을 청취하고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삼우중공업(주)은 울촌제1산단에 2007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생산품은 조선사업으로 컨테이너선 가스선 및 그밖의 상선의 선수미 불룩과 같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신사업으로 육상·해상플랜트에 설치되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고기술 집합체인 육상·해상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2017년 매출액은 1,640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협력사를 포함하여 950여 명이다. 2018년에는 수주물량 확보로 본사 및 협력사를 포함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8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내 정화활동을 비롯한 자매결연 마을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갑섭 청장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도전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울촌산단 내 입주한 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순천만국가정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순천시는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국가정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3곳을 13일부터 개장해 45일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실내정원 열

상설행사장(동문), 꿈틀정원(동문), 국제습지센터(서문)에서 설치되어 있고 이용료는 무료다. 각 물놀이장에는 특별별로 비박분수, 워터터널, 워터버킷, 워터드림, 에어슬라이드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더욱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올해는 특별히 지난해 인기를 반영해 물놀이장 규모를 늘리고 햇볕을 피해 휴식할 수 있는 천막과 탈의실용 퐁퐁텐트, 의상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시민들이 풍요로운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요원(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및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3명을 배치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위생을 위해 살균·정수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기계 및 전기 장치는 수시로 점검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물놀이장은 비가 오거나 긴급한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시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물놀이용품 등은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찬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찬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찬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찬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찬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찬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찬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찬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찬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찬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